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도연 소설가

어느 해 가을 잣나무 숲을 지나간 적이 있다. 청설모 한 마리가 잣나무 우듬지를 바빠 오가며 잣송이를 따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보통의 경우 청설모는 잣 한 송이를 따면 입에 물고 나무를 내려와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행동을 반복하는데 이 녀석은 다른 방법으로 잣을 따고 있었다. 잣을 따서 나무 아래로 떨어뜨린 뒤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 내려와 옮기는 방식이었다.

관찰은 방법이지만 한데 다른 누군가에게 도둑맞을 위험이 다분했다. 아니나 다를까. 술안주로 잣을 좋아하는 나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녀석이 탄 잣을 담기 시작했다. 당연히 나무 위의 청설모가 반응을 했지만 청설모의 말은 내가 알아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

들을 수 없는 외국어나 다름 없었기에 개의치 않고 비닐봉지를 채워나갔다. 녀석은 뒤로 한참을 씩씩거리다 다른 나무로 옮겨갔다.

또 어느 해 가을에는 고향 친구들과 산행을 떠난 적이 있다. 그때 누군가 어느 수컷 다람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 다람쥐는 바람기가 많은 다람쥐였는데, 먹을 것이 풍부한 계절에는 아름다운 철을 서녘이나 두고 산다는 것이다. 당연 먹을 게 많으니까 첩이 많아도 먹여 살리기가 쉽다.

그런데 이 녀석,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 닥쳐오면 모두 정리하고 딱 한 명만 남겨둔다고 한다. 그것도 애꾸눈인 다람쥐를. 당연히 왜냐고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눈이 애꾸면 한겨울의 굴속에서 잣이나 도토리를 반밖에 먹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란단다. 음...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이다. 올해 역시 많은 일들이 가깝고 먼 곳에서 벌어졌다. 누가 올 한 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면 나는 이렇게 쓸 것 같다.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이것은 이란의 바흐만 고바디 감독이 2000년에 만든 영화의 제목이다. 이라크와 이란의 박해를 받으며 양국의 국경에

사는 평범한 쿠르드인들에 관한 슬픈 이야기다.

소년 가장이 된 주인공이 하는 일은 유일한 생존 수단인, 국경을 몰래 오가며 밀수를 하는 것이다.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워낙 추운 지역이라 눈으로 덮인 국경을 넘으려면 말(馬)에게 독한 술을 먹여야만 되어서 붙여진 제목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이 내게는 말(馬)로 여겨지는 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올 한 해 이 땅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과 거기에 뒤따라오는 무수한 말들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마치 취한 말들이 비틀거리고, 달려가고, 물러오고, 쓰러지는 세상에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다.

더 나아가 취한 배에, 취한 기차에, 취한 그 무엇에 실려 눈보라 일렁이는 세상을 건너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영화 속 일찍 기장이 된 어린 주인공도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돌아오지 않은 채 영화는 끝이 났다. 정녕 그레어만 되는가...

그런데... 지금껏 나는 취한 말들의 공격만 받으며 살았던 걸까. 나 역시 나보다 약해보이는 누군가에게 취한 말들을 던져온 것은 아닐까. 그 말에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파했던 것은 아닌가. 다른 이들이 던진 취한 말에는 온갖 괴로운 표정과 신음을 토해놓은 내가 던진 취한 말에 모르는 척, 기억나지 않는 척, 대수롭지 않은 척 등을 돌려버렸던 건 아닐까.

내가 던진 말은 절대 취한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말이었다고 고집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도망쳤다는 죄책감이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있으니, 취한 말뿐만이 아니라 취한 행동까지 저질러놓곤 억지로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해 가을 나는 잣나무 우듬지의 청설모를 계속 따라갔다. 녀석이 떨어뜨리는 잣송이를 빠짐없이 비닐봉지에 담으며, 나무 위에서 방방 뛰며 고향을 치는 청설모에 대해 재밌어 하며, 녀석이 건너야 할 길고 깊은 겨울은 눈곱만치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렇게 깔깔거리다가 제법 목직해진 봉지를 든 채 잣나무 숲을 빠져나왔다.

그리곤 술자리가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 청설모 얘기를 들려주며 재밌지 않느냐고 깔깔거렸다. 그들은 슬픈 눈으로 저 위의 다람쥐를 보듯 취한 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의료칼럼



박진우 보리안과 원장

“원장님! 가까운 곳이 잘 안보여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환자에서 듣는 말이다. 나는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한다. 물론 노안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에게 노안 때문이라고 하면 내가 벌써 노안이나 떠실망스러운 내색이 역력하다.

또 어떤 분은 “내 몸에 어디가 안 좋아서 노안이 온 거지”, “내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는구만”, 혹은 “이제 다 살았구만” 등등 너무나 비관적인 생각으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전할실 안에서 벌어지곤 한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데에는 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안

안이라는 말 자체가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말 그대로 노안(老眼)은 늙은 눈이라는 뜻이다. 노안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으로, 그 당시에는 보통 노안이 시작하는 40대 후반에 어울리는 용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평균 수명이 79세로 40대에 노안이라는 용어는 어쩌면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다.

노안이라는 말이 눈이 변화되는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냥 사용되고 있을 뿐 노년의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건강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우리 눈 안에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 하는 수정체가 있다. 수정체는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을 망막(카메라의 필름에 해당 하는 신경부위)의 한 곳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이 떨어져 모양 변화가 잘 안 되는 것이 노안이다. 즉 먼 곳을 보다 가 가까운 곳을 보게 되면 수정체가 두꺼

워져야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잘 되지 않아 가까운 곳을 보게 되면 잘 보이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보게 된다.

노안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진행돼 심해지면 가까운 곳이 전혀 보이지 않게 돼 돋보기의 도움 없이는 근거리의 모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평소 안경을 계속 사용하는데 벗고 보면 가까운 곳을 잘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는 근시, 즉 망막 앞에 초점이 맺히는 굴절 이상의 상태로 오목렌즈 안경을 쓰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근시는 가까운 거리가 수정체의 모양 변화 없이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므로 나이가 들어도 노안 증상이 더 늦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반해 평소 전혀 안경을 사용하지 않았던 약간의 원시가 있는 분들은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망막의 뒤에 초점이 맺히는 굴절 이상의 상태로 볼록렌즈로 교정하게 되며, 근시와 반대로 나이가 들면 노안의 증상이 더욱 더 빨리 그리고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노안이 오면 가까운 곳을 볼 때 돋보기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나 미용상의 문제나 오래사용하면 어지러움이 유발되므로 꺼리는 경향이 흔히 있다. 최근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대학 생을 라식수술하는 것처럼 각막에 레이저를 이용해 다층얇은 형태를 만들어 주는 노안라식수술이 있고, 각막내에 '레인드롭'이나 '카메라렌즈' 렌즈와 같은 특수 노안렌즈를 삽입해 주는 수술,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있는 경우 노안 교정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방법 등 다양한 노안수술방법이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다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본인에게 좋은 방법이 될지는 안과전문의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어 지지만 조금이라도 더 젊게 살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만의 바람이 아닌 듯하다. '노안'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제는 '눈이 늙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건강에 더 신경써야 된다'는 뜻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社說

국립종자원 직원들 ‘종자 도둑장사’ 하다니

민에게 우량 종자를 선별 공급해야 할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일부 직원의 비리는 또 다른 공직 적폐로서 허를 내 두르게 한다. 10년 가까이 종자를 빼돌려 팔아먹는가 하면 각종 자재 공급에도 비리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우량 품종을 개발, 공급해 농업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명목으로 종자 도둑장사 행태가 심해졌다. 수확도 괴롭혀 종자 도둑장사가 행해졌는데도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또 모든 업무 단계가 사람의 손을 거쳐 전산 입력되는 방식이고 직원이 전권하더라도 같은 업무를 맡게 돼 항상 비리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독이나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경찰 등 사정기관은 철저한 조사로 종자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 전국의 종자원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농정당국도 품종관리 체계를 과학화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씨앗까지 도둑질해 장사한다면 이 나라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

필검질사 등을 통해 고품질의 쌀 생산에 적합하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종자원 직원들의 여처구니 없는 불법행위는 가장 기초단계에서부터 농정 불신을 키웠다.

이 사건 역시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빚어낸 해묵은 폐단이다. 수년간 종자 도둑장사가 행해졌는데도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또 모든 업무 단계가 사람의 손을 거쳐 전산 입력되는 방식이고 직원이 전권하더라도 같은 업무를 맡게 돼 항상 비리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독이나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경찰 등 사정기관은 철저한 조사로 종자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 전국의 종자원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농정당국도 품종관리 체계를 과학화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씨앗까지 도둑질해 장사한다면 이 나라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

희생 앞둔 금호타이어 파업은 안 된다

워크아웃 ‘졸업’(기업 희생) 결정을 앞둔 금호타이어가 노사 갈등으로 다시금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사측은 격려금 지급과 임금인상을 포함한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2~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쉼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이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회사 측이 제시한 교섭안은 격려금 150% 지급, 임금체계 개선(임금인상 5.08% 효과) 및 정년 연장(만 60세), 임금피크제 시행 등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금 9.6%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우리는 회사 희생 여부를 앞둔 상황에서 파업만은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지난 5년간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 수익으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금 노사 갈등은 연말로 예정된 워크아웃 종료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지역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무너지면

협력업체의 줄도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장기간에 걸친 노사 갈등으로 법정관리의 위기에까지 내몰렸으나 가까스로 타협안을 마련해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인 상태다. 채권단의 자금 지원으로 회사와 280여 개 협력업체들이 사실상 ‘연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강조하지만 우리는 노조 행위에 대해 일체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파업이 진행되면 당장 타이어 생산 차질을 빚게 돼 국내 판매량과 해외 수출선이 끊길 수 있다. 신인도 추락에 따라 회사 정상화는 그만큼 멀어지고, 3년 전과 같은 워크아웃 중단이라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와 임직원, 지역사회 모두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파국만을 막아야 한다. 노조가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 언론과 페이스북 등에 회사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말이 있다. ‘십상시’(十常侍)라는 단어다. 십상시(十常侍)의 난'이라고까지 해서 온 나라가 시름시름하다.

십상시는 중국 후한 말기 영제(靈帝) 시절 정권을 장악하고 조정을 농락한 십여 명의 환관(중상시)을 일컫는 말이다. 후한서(後漢書)에는 이들의 수장적인 장양(張讓)을 비롯해 조충·하윤·곽승·손장·필람·율송·단구·고망·장공·한희·송전 등 12

이들 십상시들은 서기 168년(건영 원년)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오른 영제의 눈과 귀를 가려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색에 빠지게 함으로써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이들은 영제가 장성한 후에도 조정의 실권을 장악해 많은 봉토를 차지하고 부모 형제를 높은 관직에 올리는 등 그 위세가 나는 세도 떨어뜨릴 정도였다. 기록에 따르면 영제는 십상시의 수장인 장양을 아버지, 부수장인 조충을 어머니라 호칭하고 부르며 따랐다고 한다.

영제는 장성한 후에도 십상시들의 농간에 놀라나 정치를 돌보지 않고 주

색잡기를 일삼았는데 이에 따라 반란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 중에서 장각이 이끄는 황건적(黃巾賊)의 세력이 가장 컸지만 평정됐고 이후 십상시는 모두 열후에 봉해졌다. 하지만 십상시의 정권으로 후한은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백성의 민심이 멀어져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한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는 원소와 함께 ‘십상시의 난’을 진압하면서 후한 말 전국구 스타로 부상하게 된다.

어찌 됐든 십상시는 이후 역사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과 ‘부정한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정윤회 씨 등 비선 세력의 국정 개입을 언급한 청와대 문건이 보도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 3인방을 포함해 10인이 ‘십상시’로 지칭되며 주목 받고 있다. 이들이 과연 국정을 농단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은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00년 전 ‘망국’과 ‘부정한 권력’을 상징했던 십상시 논란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최재호 사회부장 lion@

십상시(十常侍)

기 고



김경호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

요즘 스포츠를 ‘굴복 없는 산업’이라고 부른다. 예전의 ‘돈 먹는 하마’라는 인식과는 판판이다. 스포츠마케팅의 용어 창출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변화다. 전남은 따뜻한 기후, 풍부한 먹거리, 다양한 스포츠시설 등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쏟았다. 그 결과 전남은 동·하계전지훈련의 최적지가 됐다.

전남의 2014년도 동계전지훈련 성과를 보면 연인원 57만5000여명을 유치하여 583억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지난해 대비 경제효과는 28억원이 증가했다. 하계 전지훈련도 214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전남이 동계전지훈련 메카로 부상하려면

전남의 이러한 성장세는 전지훈련 유치에 골몰하고 있는 제주, 경남 등 경쟁시·도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참가인원수 변화 추이에 따른 ‘남도 3도’의 동계전지훈련 시장의 양적성장률은 110.2%였다. 그런데 전남은 이 기간 동안 무려 313.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앞서나가던 제주가 43.1%, 경남은 68.3% 성장세에 그쳤다. 선두자라도 전남 밖에 없다.

몇몇 시장은 또 어떠한가? 2014년 기준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1435억원, 간접효과는 4178억원 규모다. 간접효과 기준 지역 GDP의 0.24%를 점유하고 있다. 엄청난 시장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며 시·군을 독려하고 지원하는데 급급하였다. 현재 실정과 앞으로의 성장세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접근은 등한시했다.

따라서 변화가 필요했다. 전남도가 그동안 실시해온 시·군 담당 공무원 회의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데 그침에 따라 올해부터 도청과 도체육회, 시·군 합동 위

크숍으로 전환해 지난 11월20일부터 이틀간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또 전지훈련 유치 성과와 우수 사례 및 유치 전략 등을 시·군별 발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그 결과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특히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김민철 전남도 교수를 초청하여 ‘동계전지훈련 시장의 산업적 가치와 지속적인 성장전략’의 특강도 열었다. 바로 이 특강에서 김 교수는 다른 시도와 비교·분석한 전남의 상황, 앞으로의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 등을 제시했다.

남해스포츠파크(투자액 386억원), 영월스포츠파크(484억원), 통영시 산양스포츠파크(309억원), 구미체육공원(350억원) 등의 조성으로 남해안 동계전지훈련의 현재 시장 가치는 ‘포화기’로 진단한 김 교수는 이제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가 목전에 다다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실정인데도 신규 지역이 시장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다. 그러나 스포츠마케팅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높고 앞으로도 상당한 수요가 있는 시장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우석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